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포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98 열린바자 이번 주 개최

전자제품 · 농수산물 · 의류 · 서적 등 다양
수익금은 모두 새 예배당 건축에 사용키로

냉장고, 컴퓨터, 복사기, 부동산, 미술품, 보석, 책, 국밥, 첼로..... 이런 물품들이 전시된 것을 어느 백화점에서 볼 수 있을까? 그러나 이번 주 교회에 오면 이런 물품들을 마음껏 구경하고 구입하고 먹기도 할 수 있다. 더욱이 일반 매장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성격의 부동산 등 다양한 제품도 바자에 있다.

'98 열린바자가 14일(수) 오후 12시 30분부터 16일(금) 오후 5시까지 서울교회당에서 열린다.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이번 바자는 본 교회 성도들이 기증한 물품과 자체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을 전시하여 성도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이웃 등 바자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판매하게 된다. 바자가 열리는 시간은 첫날인 14일은 수요일부 예배 후인 오후 12시 30분부터 개장하여 저녁 7시까지며 둘째 날인 15일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마지막 날인 16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바자에 판매되는 물품의 종류는 전자제품에서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신제품에서 사용하던 제품까지 다양하다.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오디오, 비디오 등 LG 가전제품 일체와 데스크탑과 노트북 컴퓨터 및 프린터 등 기타 주변기기가 포함된다. 서적은 새로 나온 개역개정판 성경전서를 포함해 교회서적보급소의 서적뿐 아니라 각종 교양도서가 준비되어 있고 보석과 부동산, 회원권, 증권, 도자기, 미술품 등도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남성복과 여성복, 아동복 등 의류와 유아용품, 각종 생활품, 가정용품, 스포츠용품, 각종 잡화, 학용품도 비치되어 있다. 한편 바이얼린, 첼로 등 악기류도 매장 한켠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산지에서 직송한 신선한 농수산물도 바자의 자랑거리다. 영양 고추, 의성 육속 마늘, 참깨, 완도산 재래 김, 김밥용 김 등과 평택산 애플썰, 영동산 현미 찹쌀, 진도 검정 약쌀 등 각종 쌀도 전시 판매된다.

바자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위해 각종 먹거리 장터도 선다. 얼큰한 국밥, 육개장도 있고 빈대떡, 순대, 오뎅, 떡볶기, 해물파전, 목, 만두, 해물 수제비, 소면 등도 출출한 배를 채우기엔 제격이다. 이 코너는 수 차례의 바자를 거치면서 성도들과 이웃들의 따뜻한 친교 장소로 이미 유명한 곳이 됐다.

한편 교회는 바자 기간 전까지 물품 기탁을 원하는 관심있는 성도들의 참여를 계속 환영한다. '98 열린바자의 한 관계자는 "열린 행사인 만큼 주변의 이웃이나 친지 등 누구든지 열린 마음으로 바자에 참석하여 필요한 물품을 얻는 외에, 서로 친교를 갖고 보다 교회에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를 밝혔다.

바자 매장안내

장소	취급품목
교회당 앞 (주차공간)	농수산물, 먹거리(만두, 잡채, 떡볶이, 식혜, 커피, 음료 등), 김치, 젓갈, 밀반찬, 건강식품, 자유판매대(위탁판매품), 생활필수품, 여성의류, 남성 의류, 위탁판매품 일부
2층	1·2·3·4교구 매장 전자제품 매장
3층	5·6·7·8·9·10·11·12교구 매장 위탁상품 및 기증품(생활필수품, 의류, 잡화) 매장
4층	고가기증품(피아노, 시계, 금반지, 도자기, 액자) 매장, 바자본부, 상담실
옥탑층	호박죽, 육개장, 만두, 음료 등

비전 2020 발대식

50일간의 행진 지난주 첫발



지난 주 '98비전2020 운동이 시작됐다. 찬양예배 시 거행된 발대식에서 참모들은 찬양을 통해 50일 간의 비전2020운동 기간 동안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STN서 열린바자 방송

'98 열린바자가 서초케이블텔레비전(STN, 채널55)에서 방송된다.

바자 현장 촬영은 14일(수) 12시 30분에 있을 예정이며 촬영된 내용은 14, 15, 16일 3일간 하루 2회 방송하게 된다.

이에 앞서 자막 방송으로 12일(월)부터 16일(금)까지 프로그램 종료후인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4시 30분 2차례 나간다.

10월 학습·세례식

10월 학습·세례식이 21일(수) I·II부 예배 시 거행된다.

학습자를 위한 교육은 11일(주일) II부 예배 후, 세례자를 위한 교육은 18일(주일) II부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각각 실시되며 이때 교육을 받지 못한 성도를 위해 19일(월) 오후 7시 301호실에서 추가교육을 실시한다. 문답은 20일(화) 오후 7시 403호에서 실시한다.

이사야 강해

다가올 평화

이사야 11장 6-9절

히브리어로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은 우리가 말하는 평화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즉 전쟁에서의 승리, 장사해서 많은 이득을 남기는 것, 공부하는 사람이 학문적 열매를 맺는 것, 또 병든 사람이 회복하는 것과 같은 모든 좋은 것을 말합니다.

메시아는 평화를 가지고 오시는 분으로 그 분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의 것과는 다릅니다.

1. 조화와 질서를 가져오시는 그리스도

세상에 완전하게 조화를 이룬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더욱이 세상에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강의 왕이 오시는 날에는 이 세상의 만물이 조화와 질서 속에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리와 양이 함께 거한다는 것은 이리에게 적개심이 사라지는 것과 양에게 두려움이 없어짐을 의미합니다. 염소는 표범의 먹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친구가 되어서 함께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쾃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끌려 다닌다고 했으니 이것은 안전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조화와 질서가 있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자와 이리때는 그 성품이 매우 급하고 격렬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 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화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평한 자로 만들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주님을 마음에 모신 자입니다(마 5:9).

표범과 염소가 함께 누웠다는 말은 거룩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마음에 가운데 들어가면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되고 부드럽고 거룩한 성품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며 그 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스테반을 죽였던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므로 예수님을 믿는 어린양들과 함께 거하며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축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2. 안전을 보장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리나 사자는 야생동물입니다. 본문은 인

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모세가 알려준 하나님 지식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요 14:9).

"그 때에 이리가 어린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쾃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었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떼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사 11:6-9)



이종운 목사

간이 그러한 야생동물과도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잔인한 동물의 대명사인 곰도 암소와 함께 먹는다고 했으니 이 평화는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있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무서운 사자와 잔인한 곰을 변화시키시듯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더 이상 우리를 해할 원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렘전 3:13).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재난만 면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도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세상에는 두려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죽음에 대한 공포이며 또 한 죄와 삶의 의미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과 죄와 삶의 의미를 해결 하셨습니다.

3.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인간은 만물보다 악하고 더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식을 충만히 가지게 되면 인간은 진정한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도 가져

하나님 지식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다는 헬라어로 '기노스코' 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 혹은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과 같이 단순하게 지식적인 것이 아닌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과 같이 연합을 통하여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사 11:3). 하나님을 아는 것은 상상이나 이론의 산물이 아닙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박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 다"라고 고백했습니다(시 16:2).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복으로 아는 사람은 여호와와의 말씀도 사랑합니다.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렘전 2:2-3).

'98비전2020운동 참가기

처음 드린 철야기도

서희자(마리아 1전도회장)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처음으로 철야기도를 했다. 이번에도 마리아 전도회장이라는 직분을 맡지 않았더라면 아마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시작하기 전엔 걱정이 안될 수 없었다. 나 뿐 아니라 대부분 우리 마리아 회원들은 돌보아야 할 어린 아이들이 있고 더군다나 추석 연휴 끝이라 집안일로 몸들이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무거운 마음으로 낮에 연속기도회실을 찾아 하나님께 간구했다. 우리 회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을 맡기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왔고 감사하게도 그날 저녁 다섯 명의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주셨다.

우리 여섯 명은 찬양으로 기도회를 시작했다. 그 다음 성경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공동기도제목을 따라 하나씩 통성으로 기도하고, 다시금 찬양을 드리고... 그렇게 반복하기를 5시간 쯤. 새벽 3시가 되자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는 졸음이 몰려왔다. 차한 잔을 마신 후 우리는 꼭조이는 기도인 찬양을 한 시간 가량 계속했다. 아마 한 반년치 찬양을 다 했던 것 같다.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던지. 다시금 우리 입술에 기도의 불이 붙었고 각자 돌아가며 기도를 마무리하는 동안 새벽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해 오시는 성도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새벽예배까지 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마음이 뿌듯하던지. 성령님께서 도우시자 밤이 맞도록 기도하게 하셨기에 나도 무언가 작게나마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었다.

기도의 줄이 끊겨 조바심이 나고 답답하던 내게 서울교회 비전2020운동을 통해 기도의 줄을 다시 잡도록 해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린다. 다른 죄에 대해서는 비교적 민감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도 전도하지 않았던 죄에 대하여는 무감각하여 회개치도 못했던 나날들이 부끄럽게 생각되었다.

아울러 이번 철야기도회를 통해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자 비전 2020운동 기간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번 기회에 불신자들을 향해 우리의

기도와 정성을 쏟아 우리 민족 75%가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역사에 모두 동참케 되기를 원한다. 또 반드시 자신이 속한 전도회가 아니라도 연속기도회나 철야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여 이 기간 내내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금주의 비전2020운동

▶태신자카드 작성 및 제출

▶24시간 연속기도회

오전6시 - 오후 10시: 연속기도회 참가신청자

철야기도 담당부서	11일(주일)	제1·2권사회
	12일(월)	바울1, 에스더1
	13일(화)	요한2, 마리아2
	14일(수)	베드로2, 루디아2
	15일(목)	바울2, 에스더2
	16일(금)	스데반회, 대학부

▶금요심야기도회(16일)

주력부대: 1·2교구, 요한, 대학·청년부, 할렐루야

▶투요등반전도(17일): 2·3교구

'98비전2020운동

공동기도제목

1. 비전 2020운동을 위하여

-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 전할 기회를 허락하시고 담대함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 모든 성도들이 이번 운동을 통해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중에서 꼭 한사람씩 전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 잃은 양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보아 다시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 비전2020운동의 확산으로 전 국민의 75%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복음으로 한국교회가 갱신되고 북한에도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 복음 전하기 전 기도로 무장하게 하옵시고 전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 24시간 연속기도회로 기도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새로 실시하는 교구별 등반 전도가 좋은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2. 교회를 위하여

-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 당회원과 모든 제직들의 영성을 항상 깨닫고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성전건축의 절차와 진행과정을 순조롭게 인도해 주소서
- 건축을 위한 '열린 바자' (10월 14일 - 16일)가 은혜 중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 제 14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가 한국교회 갱신을 힘차게 이끌어 나가게 하옵소서
- 각 기관마다 순종하며 충성하는 종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3. 나라를 위하여

- 우상숭배와 교만함의 민족적인 죄과를 회개하오니 깨끗이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간구하여 백성을 잘 이끌게 하옵소서
- 전쟁의 위협과 심각한 경제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 실직·퇴직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가정에도 이길 믿음을 주시옵소서
- 복음으로 남북이 하나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4. 가정과 개인을 위하여

- 서울교회 자녀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민족복음화의 병기가 되게 하옵소서
- 부모들이 신앙생활의 본을 보임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옵소서
- 병 중에 있는 성도들과 시험에 빠진 자들에게 능력과 은총으로 치유하여 주소서
- 불신 가정의 구원과 각 가정의 평강을 허락하소서
- 성도들의 직장과 사생활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소서
- 시험 준비 중에 있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믿음의 부요함을 내려 주소서

새 예배당 소식

건축현장서 감사예배

3년만에 감사의 첫삽질

우리 교회 당회원들은 10일(토) 새 예배당 터가 있는 강남구 대치동 현장에서 우리에게 성전부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1995년 10월 대한기독교감리회 목양교회로부터 대지를 구입한 지 3년 만에 정지작업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참여했던 이들은 함께 눈시울을 적셨다.

특히 이 날은 7년 전 우리 교회가 '서울교회'로 교명을 정한 날로 참석한 이들의 마음을 더욱 속



연케 했다. 예배 후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순으로 감사의 삽질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한편 건축위원회는 10일 오후 설계회사로부터 수정된 설계 도면을 받았으며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시공회사와 계약, 그리고 착공계를 제출한 후, 시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순례자 컬럼

절제

건강을 남용하면 병자가 되고 돈을 낭비하면 가난뱅이가 된다. 시간을 남용하면 패자가 되고 정력을 낭비하면 후회하게 된다. 지나치게 쓰는 것을 과용이라고 한다면 탐욕, 무리, 혹사, 방탕은 이에 속하는 말들이다. 분수를 알고 지키고 족할 줄 아는 것을 절도있게 사용하는 적응이라 한다면 절제, 극기, 절약의 덕은 이에 속할 것이다. 절제있는 생활을 한다는 말은 자기와의 싸움이며 소망과 용기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절제하는 사람은 그에 대한 대가를 얻게되고 공수표만 남발하듯 남용하는 사람도 응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절제란 아끼고 줄이는 것만이 아니다. 물어야 할 자리에선 눈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개와 감사와 봉헌과 사랑의 통곡을 있게 하는 것이며 위선과 기증한 행위가 배격되고 적극적 헌신과 실천과 희생의 덕성이 되어야 한다. 가령 시간을 절제하는 이에게는 바쳐야 할 일에는 모든 시간을 아낌없이 바치는 것이 절약이요, 절제인 것이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5일(목) 천안북지방 남녀전도회연합 일일사경회를 성환교회에서 인도한다.

◇ 광종철·한현숙 집사는 압구정동 미성아파트로 이사했다. (☎ 3446-1403)

◇ 오늘 점심식사는 나희주 장로·박윤희 집사가 가정에서 제공했다.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열린 바자

지금까지 접수된 것(10월 4일 ~ 10일 현재)

접수번호	출품내역	기증자(교구)
24	주서(Juicer), 의류 42점, 안전표지판	김인숙(3교구)
25	스킨케어 상품권 20장	강인희(4교구)
26	벼루, 신발 4켤레, 가방 1개	김세재(4교구)
27	귀금속 세척제 48개	우유명(6교구)
28	미역 200개	박순옥(4교구)
29	도장(마노) 4개	우심화 목사
30	금반지 2.5돈	차옥녀(1교구)
31	바이오 양말 200족	정정숙(6교구)
32	남성양복 티킷 3매	이동만(1교구)
33	의류 1박스	이영숙(7교구)
34	남성의류 7점 등	정봉금(5교구)
35	밍크 목도리, 누비 잠바, 의류 5점	안순이(11교구)
36	한복, 양복 외 의류 3점	최정옥(3교구)
37	스웨터 2점, 투피스, 바지 6점 등	김재석(3교구)
38	신사복 8벌	이민화(5교구)
39	넥타이 20개	김수영(3교구)
40	커피세트 2점	허 숙(11교구)
41	신사복 1벌, 여성바지 2점 등	허인숙(12교구)
42	천안공원묘지 분양권 1좌	최용길(12교구)
43	작품	전광영(3교구)

지난 주 접수 내용 중 수정

접수번호	출품내역	기증자(교구)
17	참깨 70Kg	조철기(4교구)
20	순금 행운의 열쇠 2점	이영자(8교구)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국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찬양의 시간" 이 매주일 오후 4시부터 50분간 1층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바자를 위해
2. 비전2020운동을 위해
3. 제 14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와 제 4학기 서울성경대학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위치

